돌솥 차 향기 천하에 퍼지리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讚不及毁不及(찬불급훼불급)
若了一萬事畢(약요일만사필)
無欠無餘若太虛(무흠무여약태허)
爲君題作波羅密(위군제작바라밀)

찬탄도 미치지 못하고 훼방도 미치지 못함이라
만약 하나를 요달하면 만사를 마치도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어 태허와 같거늘
그대를 위해 바라밀이라 이름하노라

삼하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제방의 수선납자여!

안거(安居)가 원만했고 자자(自恣)가 원만했으며 인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법식(法食)이 넉넉하니 금년 하안거는 제천이 환희하고 부처님께서 칭찬할 만하도다.

이러한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 이 수행법은 곧바로 여래지에 이르는 수승한 방법이니 모두가 활용해야 하리라.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 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

이제 삼하결제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짊어진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폭우로 신음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이 되고,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어내고 풀어줄 넓은 가슴이 있는가?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

누군가가 영축산의 소식을 물으면 어찌 답하시려는가?

올여름 무더위에 구룡지 옆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어나고 돌솥에 차 향기는 더욱 진하다네.

採藥忽迷路(채약홀미로)
千峰雲霧裏(천봉운무이)
山僧汲水歸(산승급수귀)
林末茶烟起(임말다연기)

약을 캐다 길을 잃었는데
천 봉우리는 운무 속이네
산승이 물 길어 돌아가더니
숲 끝에 차 달이는 연기 일어나네

어떤 것이 본래종인가?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陞座 拄杖三下云 會麽
即下契合大悟出 萬仞峰頭獨足立
石女舞成長壽曲 木人唱起太平歌
今日 解制大衆은 還知麼?
若不知인댄 且道하리라.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아시겠습니까?

직하에 계합하여 크게 깨달아 뛰어나면
만길이나 되는 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돌여자는 춤을 추며 영원히 사는 곡조를 이루고
목인은 일어나서 태평가를 부르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했을진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의한 도는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妙智는 가히 유심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며
진실한 도리는 가히 我相의 존재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이치는 가히 사를 헤아려서 되는 것도 아니라. 만약 대중이 알아 얻어간다면 가섭존자의 떨어진 가사옷이 값이 百千萬량이지만
만약 알아 얻지 못한다면 윤왕의 상투 가운데 보배는 반푼어치도 못된다.
如何是本來宗? (어떤 것이 본래종인가?)
答曰 密室不通風 (밀실은 바람도 통하지 못합니다.)
問 智識不到處 如何?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어떠한가?)
答曰 三門不曾開 (삼문을 일찍이 열지 아니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날 이 산승이 75년도 동안거를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향곡조실스님을 모시고 입승소임을 맡고 한철 정진을 했는데, 해제하는 날 향곡조실스님께서 월내 관음사 가서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차에 타라고 하셔서, 월내 관음사로 조실스님을 모시고 가서 76년도 하안거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전국신도회장 이후락 박대통령 비서실장과 경남도지사와 일행 30명이 향곡조실스님 친견차 관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가 안내했습니다.

조실채로 가보니 향곡조실스님이 방에 안 계시고 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이후락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비서실장 일행은 조실큰스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향곡조실스님과 이후락 비서실장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이후락 비서실장이 향곡조실스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말씀하시오." 하셨습니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향곡'이라 해서 향곡에 와봤더니 향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했습니다.

향곡스님 대답하시길 "대천세계가 다 향내거늘 향내를 따로 찾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락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결국 그렇게 됐군요." 하니 향곡스님께서 "선방으로 들어갑시다." 하셔서, 선방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차담을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관음사 올 때는 큰스님 뵙고 불사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철길 위로 다리를 놓아 주고 큰 선방 불사도 해주기로 했는데 돌아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후락 비서실장이 큰 감동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풀 뽑는 울력을 했는데 제가 향곡조실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실큰스님께서 이후락 비서실장을 크게 한 방망이 내렸더라면 이후락 실장이 또 찾아뵙고 불사를 크게 했을텐데, 방망이가 너무 약해서 감동을 받지 못해서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향곡조실스님 말씀이 "입승 대원스님 같으면 향내가 안 난다고 할 때 이후락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겠는가?" 하시고 물으시길래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한로축개(한로축괴)는 원래 냄새를 잘 맡고 다니지." 라고 하겠습니다.

향곡조실스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중략〉

공부정진하는 납자는 항상 선지식 가까이서 공부점검 경책을 자주 받고 정진해야 빨리 본분사 일을 해 마칠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외도 아니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깨달아서 반드시 선지식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해 증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하루속히 눈 밝은 납자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가해서 이 일을 해마치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서 무용지물로 삼보의 빚만 지고 있으니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시급함을 느끼면 지극한 화두 참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然이나 難明向上一窺
(위로 향하는 한 구멍을 밝히기 어렵다)
卓拄杖云(주장자를 높이 세우고 이르데)
一曲少林無孔笛 從來多是逆風吹
한 곡조 소림의 구멍 없는 피리를
종래로 많은 이가 역으로 부는도다.

喝

拄杖三下下座하시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8월 8일 을사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 스님을 비롯한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지면 사정상 전문은 QR코드를 이용해 현대불교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지금은 주인공의 시대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若人慾了知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부처님을 알고 싶은가? 이 물건을 알고 싶은가?
법계성을 응관하라. 세상을 느껴봐라.
일체가 유심이다. 일체가 이놈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놈이네!
아, 태초여! 아무것도 묻어있는 것이 없네.
언제나 새출발, 그때그때 반응, 방실방실 반응

본다, 듣는다, 이놈이네.
바다, 파도 소리, 반야
백천만 가지가지 반야의 반(般)
보고 듣는 이 주인공 반야의 야(若)
반야, 반야심경은 이뭘까? 부처님 화두 법문

세상을 안고 있는 허공, 허공을 삼킨 이 물건
꽉 찬 허공, 생명의 숨길 바다, 숨 쉬는 숨통
낱낱이 자기 향기, 자기 색깔, 자기 기세
풀, 나무, 바위, 흙, 나는 새, 기는 짐승, 벌레, 물고기
모두 모두가 서로서로요, 원융무애(圓融無礙)로다.
높낮이 녹아진 지심(至心)바다
두두(頭頭)가 알 수 없는 이뭘까? 생명의 화두 이뭘까?
이놈, 이 한 생각, 전체 한 덩어리 이뭘까?
이뭘까?는 생명바람, 목숨바람
알 수 없는 이뭘까? 화두, 화두는 내 심장
주는 마음, 대중 시봉, 보시, 심장을 후끈하게 합니다.

소통, 상생, 합세의 위력, 어울리는 여유
벌떡 일어나 솔선하십시오. 심장이 탄력을 받습니다.
보살행은 눈이 크게 떠집니다. 숨이 크게 쉬어집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보살행, 결코 작은데 묻히지 마십시오.
대자대비 사랑의 관세음보살
보살행은 심장이 터지는 불공이요, 소원 성취가 되는 기도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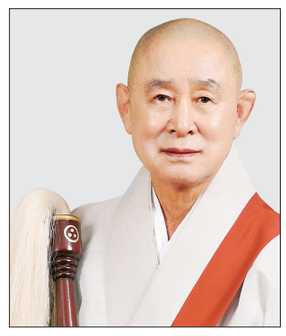
금청일계성 장부능사필
(今聽一鷄聲 丈夫能事畢)
홀득자가보 두두지차이
(忽得自家寶 頭頭只此爾)

닭 우는 소리에
장부능사 이 일 뿐임을 알았네.
홀연히 자가보를 얻고 보니
이놈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머리머리 이놈이네.
나무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

오직 마음 깨달아야 출격장부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絶學無爲閑道人 절학무위한도인
不除妄想不求眞 부재망상불구진
無明實性卽佛性 무명실성즉불성
幻化空身卽法性 환화공신즉법성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환과 같은 텅 빈 허깨비 같은 빈 몸이 법성이니라.

자신의 진여 자성을 깨달아 알았다면 할 일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다. 애써서 망상과 잡념을 없앨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성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다.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어, 묵, 동, 정, 어느 것 하나도 도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 성품은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서 어두컴컴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 버리면 그대로 파란 하늘입니다.

역대 선지식이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 출격장부가 된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항상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서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십니다.

여름 안거 한 철 용맹정진해서 마음을 확철하게 깨달아서 참다운 자유인이 되신 출격 장부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본성을 깨닫지 못해서 미망 속에 헤매는 수좌도 있을 것입니다.

산승이 주먹을 들어 올리면,
대중은 이 주먹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주인공이 있어야지 분명하게 주먹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사물을 비추고 마음이 있어서 주먹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처가 누굽니까!

알았다고 하는 그 자리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에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제되었다고 공부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공부 길에는 결재 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깨달아서 대장부가 되어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미생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앉으나 서나 일용생활 속에 화두를 드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가고 오고 앉고 서고 간절하게 화두일여 속에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見聞覺知無障碍 견문각지무장애
聲響味觸常三昧 성향미촉상삼매
如鳥空中只麼飛 여조공중지마비
無取無捨無憎愛 무취무사무증애
若會應處本無心 약회응처본무심
始得名爲觀自在 시득명위관자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데 장애가 없다.
소리. 향기. 맛. 촉감. 등은 늘 삼매로다.
마치 새가 공중에 나는 것 같아서
취함도 버림도 사랑과 미움이 모두 떠났네!
이렇게 본래 무심한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네. 〈하략〉

법어 전문 바로가기